

정보화 근로사업을 통한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화 근로사업은 '98 추경예산 1,350억원을 투입하여 8개부처 11개사업을 이달부터 4~6개월간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금년에 실시되는 각 부처 사업은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방법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김영웅/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1. 정보화 근로사업의 필요성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유형의 자원보다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이다. 지식정보시대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물리적 인프라인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더불어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콘텐트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주변에는 IMF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졸 미취업자 및 사무직 실직자 등 실업자 수가 165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정보화 근로사업은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고학력 실직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 유망산업인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실업대책은 대부분 단순한 취로사업 형태로 시행되어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되지 못한 면이 있다. 특히 대졸미취업자 및 화이트칼리 계층의 고학력 실직자들이 참여할 분야가 많지 않았다.

이번에 실시되는 정보화 근로사업은 공공부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주종을 이룬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이 분야는 컴퓨터 환경에 익숙한 고학력 실

직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이 넘쳐나는 요즈음에 중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정보선진국으로 부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한다.

개인이나 국가 모두 위기는 곧 기회를 동반한다. 현 IMF체제의 위기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정보화 근로사업이다.

2. 정보화 근로사업 내용

정보화 근로사업은 '98 추경예산 1,350억원을 투입하여 8개부처 11개 사업을 금년 10월부터 4~6개월간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금번에 실시되는 각 부처 사업은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가 정보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지금 까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적절하게 투자되지 못했다. 그 실례로 '98년도 전체 정보화 예산(5,285억원)의 10.6%인 559억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편성된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정보화 근로사업에 1,350억원의 투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번 정보화 근로사업은 정보활용 능력이 있는 화이트칼라 계층을 주 대상으로 일일 3만 5천여명을 약 4개월 동안 고용하게 된다. 근로자의 임금은 개인의 컴퓨터 활용 정도에 따라 일일 기준으로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되며 전문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의 임금은 별도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고용인력이 안정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성 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근무장소는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와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시군까지도 가능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업무는 재택 근무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서적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검색·활용토록 하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과 게임, 영상, 디지털만화 등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디지털화하는 사업, 부동산등기업무, 건축물대장 전산화, 지하매설물 수치 지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안방에 앉아서 공공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3. 정보화 근로사업별 세부 내용

▲ 정보화지원사업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본격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운용성, 활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표) 정보화 근로사업 주요 내용

주관부처	사업내용	예산(억원)	고용인원(명/일)	비고
대법원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200	4,500	서울, 6대광역시
국회	전자도서관	50	1,500	서울(재택가능)
문화부	전자도서관	50	1,500	서울(재택가능)
정통부	정보화지원사업 영상자료디지털화 Y2K 교육 및 해외취업	300 223 40	8,000 6,500 1,000	서울, 6대광역시 서울, 6대광역시 (교육인원)
건교부	주제도 수치지도화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 지형도 전산화	150 200 50	3,500 5,200 1,200	전국 전국 전국
행자부	건축물대장 DB화	50	1,300	서울, 경기도
농진청	농업기술정보 DB화	25	650	전국 시·군
통계청	고용통계 인프라 구축	12	150	서울 및 지방사무소
합 계		1,350	35,000	

고,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

멀티미디어콘텐트 개발에 필요한 3차원모형, 동영상, 실사진, 효과음 등을 디지털화 하여 국내 디지털 만화, CD타이틀 제작, SF영화 등 멀티미디어콘텐트 개발업체에 염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인력교육 및 해외송출사업

2000년도 표기문제와 관련한 국내 S/W인력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외진출 가능성이 많은 인력을 선별하여, Y2K관련 기술교육과 국제공인자격 취득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취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94~2003까지 4,159억원을 투입, 전국의 4,600만 필지의 부동산(2억 3천만 페이지)을 DB화 하고, 240개 등기소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표제부 정보, 등기부 사전 등의 DB를 구축한다.

▲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도시지역내의 7개 지하 시설물중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상수도·하수도 관로를 조사·탐사하여 도면대장 DB를 구축한다. 다만 가스관, 통신관, 전기관, 지역난방관, 송유관은 GIS 기본계획에 의해 해당 관리 기관에서 정비·구축한다.

▲ 주제도 수치지도화 사업

행정 및 민간업무에 널리 쓰이는 토지이용 현황도, 도로망도를 제작·전산화하여 공간계획업무, 도로계획업무, 환경관리업무, 재해방지업무 등에 활용한다.

▲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국회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도서관의 소장 정보(소재정보, 색인정보, 본문 등)를 PC를 통해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본문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한다.

▲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전국의 건축물대장 1,177만 동에 대하여 DB구축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중인 토지대장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형도 전산화 사업

기준의 종이 지도로는 구현할 수 없는 각종 정책 자료(도시 계획도, 토지이용도, 도로망도 등)의 작성에 기본이 되는 지도로 남한지역을 축적도에 따라 3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컴퓨터 상에 1/5,000 지도(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 농업기술 전산화 사업

농촌진흥청의 네트워크망인 농업과학기술 전산정보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농업관련기술정보의 수집·가공 및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이다.

▲ 통계인프라(CAPI 도입) 구축 사업

경제활동인구 조사시 조사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각 조사요원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하고 이를 활용 통계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4. 정보화 근로사업 참여 방법

정보화 근로사업은 18세이상 55세이하의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정보화사업의 업무 성격상 컴퓨터 작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정보통신 전문교육과정 이수, 관련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와 사무직 경력이 있는 여성인력을 전체 모집인력의 30%이상 채용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인력모집은 각 사업자가 선정된 직후 9월 중순경

주요 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모집·채용은 주관 사업자가 하게 된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화 근로사업과 관련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부와 한국 전산원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안내 및 모집공고 사업별 계약체결 등 실무작업을 완료하여 이달초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 정보화 근로사업의 파급 효과

정보화 근로사업은 고학력 실업자의 고용 창출 효과외에 현재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스템개발업체(SI업체)에 대한 부양 효과도 크고 S/W, H/W 등 관련분야의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MF체제 이후 국내 SI업체 등 관련업계의 수주 물량이 30%이상 감소한 상황인데 금번 정보화 근로사업을 통하여 관련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정보화 사업은 기반시설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인프라가 부족하여 정보 이용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사업을 통하여 '99년 시장규모는 최대 5천억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초기에 완료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업무 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으로써 민원 행정 부문에 있어서 One-Stop 처리가 가능해져 국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문의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초고속망기획과
(750-1246)